

예배 및 모임안내

2019-46호 2019년 11월 17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교육관 7번 교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봉사자 기도 모임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24	12. 01	12. 08
대 표 기 도	이수현 집사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성 경 봉 독	이수현 집사	장준화 형제	유미영 집사
헌 금 위 원	유미영 집사	김효종 집사	유미영 집사
안 내 위 원	박재기 집사	김남희 집사	김남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렘45~52장, 갈1~6장, 엡1~6장)
2. 찬양집회 - 23일(토) 오후 2시, 음대 강의실 217호
3. 말씀 나눔 - 친교실 정리 후 5번 교실에서 모입니다.
4. 선교사 선물 보내기 - 다음주일(24일)에 특별헌금 시간 있습니다(봉투 이용해주세요)
5. 나눔의 시간 - 임미수, Enno Schwass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형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26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71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98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영희 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계 10 : 8 - 11(신p409)..... 김영희 권사
(Offenbarung 10:8-11)
- 설 교 Predigt 사도 요한의 새로운 사명.....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00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이수현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질

종자돈 헌금

중국에 가서 학교를 세우려고 비행기 표를 구입해 놓았는데 아무 소득 없이 열흘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12월 20일쯤 명현이라는 청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6개월간 조금씩 저축해서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금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최박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더욱 놀란 것은 그가 일주일 전에 실직한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웹마스터였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려면 100만 원 정도 되는 서버용 컴퓨터를 사야 했지만, 그 돈을 헌금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서동민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혹시 컴퓨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컴퓨터 사업을 하시는 분을 도와드리려고 한 대 샀는데 필요하면 애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명현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로님께 컴퓨터 사양서를 메일로 받아서 명현 형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명현 형제의 전화였습니다. “최 박사님 제가 사려고 했던 그 기종입니다.”

비록 실직했지만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청년의 종자돈 헌금을 받으시고, 다른 길을 통해 필요한 컴퓨터를 안겨주신 하나님, 주님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하기에 주님께 인생을 건 우리 영의 힘 역시 강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잠재우지 말고 사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 최하진 선교사
(중국 열방증,고등학교 설립자)

*** 헌금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다음 자리에 적절히 배치될 것이다. - Andy Stanley -**